

## 전북지역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

— 최명희의 『혼불』을 중심으로

김승중\*

1. 서론
2. 『혼불』과 전주정신, ‘꽃심’
  - 2-1. 『혼불』이 지닌 역사의식
  - 2-2. 전주정신 논의 과정과 『혼불』
  - 2-3. 전주정신의 정립과 『혼불』의 새로운 활용
3. 『혼불』 관련 주요 시설과 행사
  - 3-1. 전주 최명희문학관의 현황과 개선 방안
  - 3-2. 남원 혼불박물관과 혼불마을 현황과 개선 방안
  - 3-3. 서사 음악극 <혼불>과 콘텐츠 개발 현황
4. 결론

### 국문요약

이 논문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문학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최명희 작 『혼불』의 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작성되었다. 『혼불』이 전북지역 도시와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문학유산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최명희의 『혼불』은 “가문사적이면서도 민속지적 소재”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서 전북지역의 역사, 문화, 야담, 민속, 굿 등이 서사 전개 과정에서 수시로 개입함으로써 ‘박물지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 이 작품은 또한 전북지역 내에서 가장 많이 기억되고 활용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

\*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정교수.

전주와 남원에 각각 최명희문화관과 혼불문화관이 운영되어 있고, 서사 음악극 〈혼불〉이 2002년부터 공연되고 있으며, 혼불문학상, 혼불학술상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해마다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전시 및 체험 공간의 협소, 예산의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 『혼불』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회와 『혼불』 관련 모든 시설과 행사를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령탑(control tower)의 부재, 유족들의 협조 미흡 등과 같은 여러 원인에 의해 『혼불』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전주와 임실 둔덕리마을에서 『혼불』의 핵심어 중 하나인 ‘꽃심’을 지역의 대표 정신으로 설정하여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역 문학유산을 새롭게 활용한 사례이다.

이 논문은 이처럼 『혼불』이 전주, 남원, 임실 등에서 지역 문학유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문학유산이 지역 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지역 문학유산, 최명희, 혼불, 꽃심, 전주정신, 전주, 남원, 문학관)

## 1. 서론

1998년, 향년 51세로 생애를 마감한 최명희의 대표작인 『혼불』은 그동안 학술행사, 장편소설 공모, 문학관 건립, 추모 공원 조성, 독후감 경연대회, 작품 이어 읽기, 서사 음악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되고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작가 별세한 지 20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지자체와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혼불』을 지역의 특성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활용할 새로운 방향의 설정과 방안

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최명희를 오래 기억하고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최명희문학관이 전주시 풍남동 생가(生家) 가까운 전주한옥마을에 건립된 것은 2006년이며, 그보다 3년 전인 2003년에는 최명희 부친의 고향이자 소설의 주 무대인 남원시 사매면 노봉산 기슭에 혼불문학관이 건립되었다. 남원시가 『혼불』의 배경지에 한옥으로 건립한 혼불문학관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사회적 기풍과 세시풍속, 관혼상제와 사회상 등과 연결된 작품의 주요 장면들을 디오라마(diorama)<sup>1)</sup>로 제작하여 전시하고 있다. 혼불문학관이 자리하고 있는 노봉마을은 흔히 ‘혼불마을’로 알려져 있고, 이 마을 주민들이 주관하는 『혼불』과 관련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

남원 혼불문학관은 작품의 배경지에 위치하여 있고, 작가보다는 작품의 내용을 재현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sup>2)</sup> 작품보다는 작가의 삶과 정신세계를 조명하고자 하는 전주 최명희문학관은 작가의 세세한 삶의 흔적과 치열했던 문학 혼을 엿볼 수 있으며, ‘매년 ’『혼불』문학제(최명희청소년문학상, 혼불학술상, 혼불학술세미나, 혼불문학강연 퍼레이드)’를 개최하고 있고, “『혼불』 문학기행 ‘『혼불』이어 읽기’, ‘『혼불』독후감 대회와 같은 다양한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뒤편 건지산 기슭에 조성된 최명희의 묘역은 ‘혼불문학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sup>3)</sup>

1) 하나의 장면이나 풍경을 일정 공간 안에 입체적 구경거리로 구성한 것으로서 무대 장치적 원근법과 조명 연출에 의한 전시방법이나. 남원 ‘혼불문학관’에는 10개의 디오라마가 전시되어 있다.

2) 남원 혼불문학관 내에 작품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디오라마가 제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관 바깥에도 청암호가 만들어져 있다.

3) 『혼불』과 최명희를 기억하고 기리는 행사로는 노봉마을에서 주관하는 행사 외에, ‘(사)혼불문학’에서 주관하는 10편 이상의 당선작을 낸 ‘혼불문학상’, 『혼불』과 우수한 학술 업적을 남긴 학자들에게 수여하며 최명희문학관이 주관하는 ‘혼불학술상’, ‘혼불 정신선양위원회(남원)’에서 주관하는 ‘혼불독후감, 시, 혼불마을 답사 수필 공모전’ 등이 있다. 또한 ‘혼불문학공원’에는 후배 작가들이 선정한 혼불의 아름다운 문장들이

『혼불』의 주제어이자 최명희 문학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꽃심’은 “한국의 꽃심 전주”라는 전주정신으로 정립되어 선포 2주년 기념 행사를 이미 가졌으며, 최명희의 작은아버지가 살았다는 임실군 오수읍 둔덕리는 ‘꽃심지둔데기마을’을 마을 브랜드로 정하여 주요행사 개최 시에 사용하고 있다.<sup>4)</sup> 이처럼 최명희의 『혼불』은 문학관이나 문학공원, 문학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등의 형태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16년 이후에는 전주정신이나 둔덕리 마을 정신 등, 지역정신을 표상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북지역의 주요 문학유산인 최명희의 『혼불』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혼불』로 대표되는 전북지역 문학유산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혼불』과 전주정신, ‘꽃심’

### 2-1. 『혼불』이 지닌 역사의식

『혼불』의 배경은 일제강점기 말의 남원, 전주, 만주 봉천 등이다. 이 시기에 추진된 창씨개명은 이 작품의 중심인물인 청암부인을 병석에 놓

---

둘에 새겨져 전시되고 있다.

4) 이처럼 문학작품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지역의 정신으로 선정된 것은 국내 유일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꽃심’은 김유정의 『야행』에 먼저 쓰였지만 정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혼불』에서는 꽃의 중심, 꽃의 힘, 꽃의 정신 등의 의미를 가지면서 “아름답기 때문에 시련을 겪지만 그 시련을 깨끗하게 이겨내는 내면적 힘”이라는 뜻을 함축하며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으로 작동되고 있다.

게 만든다. 청암부인은 국권 상실기에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저수지(청암호) 역사를 벌인 바 있다. “콩깍지가 시들어도 콩만 살아있으면 언제든 새싹이 돋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던 청암부인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힘을 키우고자 하였다.<sup>5)</sup>

청암부인은 양반가의 종부라는 지위에만 의지하지 않고 마을 공동체에 실질적인 유익을 끼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덕을 베풀으로써 마을사람들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는 존경을 받게 된다. 청암부인의 죽음을 앞두고 밤하늘을 수놓은 ‘혼불’은 청암부인이 생전에 보여준 강한 정신력과 뛰어난 지도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 양반들인 이기채와 이기표 등은 시대착오적인 권위에 안일하게 편승하여 개인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행각을 벌임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얻지 못한다. 종손인 강모는 사촌누이인 강실을 범한 이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끝에 만주 봉천으로 도피하듯 떠나가는 바람에 청암부인의 부고조차 접하지 못한다.

청암부인의 임종을 앞두고 청암호는 바다를 드러내고 마을 전체는 혼란에 빠진다. 청암부인을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의 부재가 매안 이씨 가문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다. 춘복의 강실 강간과 강실의 임신, 옹구네의 강실 납치, 쇠여울네의 매안 이씨 종가에 대한 분노, 종손인 강모의 방황, 강호와 강태의 사회주의 사상 수용 등은

5) 남원 혼불문화관은 이 내용을 안내 책자에 수록하고 있으며, 해결사들은 이 내용을 관람객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혼불』의 문장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문장이 되고 있다.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다 하지만 내가 망하지 않는 한 결코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비유하자면 나라와 백성의 관계는 콩꼬투리와 콩알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비록 콩껍질이 말라서 비틀어져 시든다 해도 그 속에 든 콩은 잠시 어둠속에 떨어져 새 숨을 기르다가 다시 싹터 무수한 열매를 조롱조롱 콩밭 가득 맺게 하나니.”(최명희, 『혼불』 1권 164쪽)

양반의 권위와 양반 중심의 질서가 이미 해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혼불』은 이처럼 청암부인 이후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력'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독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소설로 볼 수도 있다. 김병용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청암부인을 중심으로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구심력과 회귀성 및 양반 중심 체제와 질서를 해체하려는 원심력과 전향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작품이다.<sup>6)</sup> 작가 최명희는 이러한 현상이 1940년대 남원 매안마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어느 지역, 어느 시대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 역사 진행의 법칙으로 보고 있다.

## 2-2. 전주정신 논의 과정과 『혼불』

2009년 10월 제10회 '전주학 학술대회' 주제로 '전주정신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에서 홍성덕은 전주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어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곧 충(忠)과 역(逆), 박해와 순교, 선비문화와 아전 및 민중문화, 저항과 풍류 등의 개념이 상반되거나 모순된 개념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주정신은 '상생과 해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장명수는 전주가 정여립의 모반사건 이후 심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때 의병을 조직하여 이치, 웅치 등에서 왜병의 기세를 꺾고 전주성을 사수하고 태조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하며, '저항과 풍류'가 전주정신으로 적합하다고 하였다.<sup>7)</sup>

6) 김병용, 『최명희 소설의 근원과 유역: 『혼불』의 서사의식』, 태학사, 2009, 54쪽. 김병용은 『혼불』에 대해 "前向性과 回歸性, 遠心力과 求心力이 그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옹구네를 통해 구현되는 전향성과 사후 청암부인의 빈번한 재림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복고성 사이에는 背馳 양상이 성립한다."라고 지적하였다.

2014년 10월 30일에 전주 한벽극장에서는 ‘온다라인문학’ 주관으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전주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에서 최기우는 조병희, 최승범, 최명희 외 전주지역 문인들의 작품들에 나타난 전주정신을 정리하였다. 작촌 조병희가 그의 수필집 『완산고을의 맥박』에서 언급한 “백제인의 가슴, 그 온유한 심성에 뿌리를 내린 멋과 예술”, 고하 최승범이 『전북의 아름다움』에서 이야기한 “아늑하고 부드러운 정서와 맑고 밝은 정신”, 그리고 최명희가 『혼불』 전체를 통해 강조한 “수난을 깨끗하게 이겨내는 힘을 지닌 아름다움과 생명력”으로서의 ‘꽃심’ 등이 전주정신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참조해야 할 내용이라고 정리하였다. 최기우는 또한 “기축옥사로 희생된 선비들과 자주적이고 평등한 삶을 갈망한 동학농민혁명의 주체들, 백성의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다 희생된 전주인들의 마음”을 일컬어서 “자기 입장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강자에게 용감하게 맞서는 ‘솔찬히 아고통한 정신’이라고 하였다. 이 발표는 『혼불』의 핵심어로 할 수 있는 ‘꽃심’을 전주정신으로 거론한 최초의 발표가 되었다. 최기우는 여러 전주정신의 하나로 ‘꽃심’을 거론한 것이지만, 이후 전주정신정립위원회는 오랜 논의 끝에 ‘꽃심’을 전주정신으로 확정하였다.

7) 최명희 역시 『혼불』에서 ‘저항과 풍류’를 언급하였다. ‘저항과 풍류. “어쩌면 이 두 가지는 아주 상반되어 보인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 가진 자는 저항하지 않으며, 억울할 일이 없는 자, 혹은 세상을 거머쥐려는 욕망으로 들끓는 사람의 검붉고 걸쭉한 혈관에는 풍류가 깃들지 못한다. 풍류는 빈 자리에 고이고, 빈 자리에서 우러나며, 비껴선 언덕의 서늘한 바람달이 이만큼에서 멀리 앓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면 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둘은 한 바탕 한 뿌리에서 뻗은 두 가짓이다.”(최명희, 『혼불』 4권, 46쪽)

## 2-2. 전주정신의 정립과 『혼불』의 새로운 활용

그동안 안동정신(“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경북정신(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이 제정된 바 있다. 앞으로 많은 지역이 나름대로 지역 정신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전주처럼 작품의 중심 단어를 그 지역의 정신으로 삼는 경우는 아직 없었다. 그만큼 『혼불』이 전주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고 ‘꽃심’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전주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8)</sup>

2016년에 선포된 ‘전주정신’은 『혼불』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주정신은 “한국의 꽃심 전주”이다. 이와 같은 문구가 확정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sup>9)</sup>

전주시 민선 6기 1차 년도였던 2015년 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전주정신정립위원회’는 역사, 철학, 문학, 공연, 민속, 인류학 분야의 전문가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1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학술발표와 전주시민 대상 여론조사, 전주 지역 원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엄중한 검증과정을 거쳐 전주정신을 정립하였다. 그 결과 전주정신을 최명희의 『혼불』의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꽃심’을 대표 정신으로 정하고 ‘대동, 풍류, 올곧음, 창신’ 등 4대 정신을 연관 개념으로

8) 전주가 다른 지역과 달리 ‘꽃심’이라는 문학적 표현을 빌어 지역정신을 정립한 이유는 전주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배치성(背馳性)’ 때문이다. 전주는 태조 어진과 조선 왕조실록을 수호한 충(忠의) 도시이자, 정여립의 모반과 천주교 순교가 발생한 역(逆)의 도시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김병용의 지적처럼 최명희의 『혼불』 역시 ‘배치성’을 지니고 있다. 한 알의 씨가 땅속에 묻힘으로써 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면, ‘꽃심’ 역시 삶과 죽음(희생)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하겠다.

9) 정립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은 정립위원들 사이의 전공과 입장 차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결정된 정립위원회 안은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시 충돌하였다. 결국 정립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이 어렵게 마련될 수 있었다.



결정하였다.<sup>10)</sup>

전주시가 이처럼 전주정신을 정립하여 선포한 이유는 첫째 전주가 전주다움을 이어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주정신이 중심축이 되어야 하고, 둘째, 전주사람들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며, 셋째, 전주사람들에게 전주사람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키워주고, 넷째, ‘전주 지역의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1)</sup>

이처럼 전주정신이 ‘꽃심’으로 정립됨으로써 『혼불』이 담고 있는 역사 의식이나 지역 사랑, 공동체 정신 등이 지역 문화 공간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혼불』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길이 열렸다. 전주시는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혼불』에 담겨 있는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굴하지 않고 대동단결하고 풍류를 즐기며 올곧은 정신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는 꽃심’의 정신을 전주시청의 정책으로 반영하고 시민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12)</sup>

10) ‘대동’은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며 함께 하는 정신”이고, ‘풍류’는 “문화예술을 애호하며 품격을 추구하는 정신”, ‘올곧음’은 “의로움과 바름을 지키고 숭상하는 정신”, ‘창신’은 “새로운 세상을 창출해 가는 정신” 등으로 규정하였다.(전주정신다올마당, 『한국의 꽃심, 전주』, 전주시청, 2018, 10-11쪽 참조)

11) 전주정신다올마당, 『한국의 꽃심, 전주』, 전주시청, 2018, 10-15쪽 참조. 이 책은 전주시가 전주정신정립위원들을 중심의 전주정신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제작한 책이다.

12) 전주시는 현재 위원회라는 용어 대신 ‘다올마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군이 전주성에 입성한 후 집강소 통치를 펼쳤던 것처럼 전주시는 ‘민관협치’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시내버스 다올마당’은 고질적인 전주 시내버스 파업을 중단시켰고, ‘동물원 다올마당’은 친 동물적인 동물원을 만들었으며, ‘선미촌 다올마당’은 집창촌을 예술의 거리로 변화시켜 나아가고 있다. 민과 관이 힘을 합하여 펼치는 이러한 정책 실행에는 ‘꽃심’의 정신, 그중에서도 대동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 3. 『혼불』 관련 주요 시설과 행사

#### 3-1. 전주 최명희문학관의 현황과 개선 방안

최명희문학관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에 소재해 있으며, 2006년 4월 25일에 개관하였다. 지하 1층은 문학 강연장인 ‘비시동락지실(非時同樂之室)’, 수장고,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상 1층에는 전시실인 ‘독락재(獨樂齋)’와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다. 마당 가운데에는 평상이 놓여 있어 관람객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sup>13)</sup>

가장 중요한 시설인 전시실에는 쇼케이스 5개, DVD, 전시물 거치대 등이 놓여 있으며, 전시 품목으로는 친필이력서 1종, 친필편지 7종, 친필엽서 30종, 혼불문학제 자료집(1~9회 9권), 연구논문(석·박사 학위 논문 30권), 사진(18여종), 최명희 작품 수록 도서(40여 권), 친필 사인 책, 최명희 관련 도서(40여 권), 옥관문화훈장, 방패연, 문방오우(몽블랑만년필, 자, 칼, 끈, 가위), 원고지 등이 있다.<sup>14)</sup>

최명희문학관은 2008년에 『혼불문학기행: 아름다우리 새도 올겠지』를 발간하였으며, 2009년 제2기 민간 위탁 이후에는 다양한 문학교육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혼

13) ‘최명희문학관’은 전주 한옥마을 ‘최명희길’에 위치해 있다. ‘최명희길’은 경기전 동문에서 기린로까지 이어지는 300여 미터의 길과 그 길의 초입에 있는 ‘최명희문학관’ 후문에서 ‘최명희’ 생가 터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을 말한다.

14) 전시장소의 협소함으로 말미암아 소장하고 있는 전시품들을 모두 전시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순환 전시하고 있다. ‘최명희문학관’ 관계자들이나 관람객들은 전시 공간의 협소함과 전시 품목의 빈곤함을 지적하고 있다. 전시관의 협조는 전주시의 예산 배정과 부지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전시 품목의 확대는 유족들의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사유재산이므로 강요할 수 없지만 유품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 마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꼭 전시해야 될 유품들이 문학관에 전시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불, 그 천의 얼굴』을 발간하였고, 이해부터 ‘혼불학생문학상과 전북문화 바우처 ‘문학강사파견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연말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2014년에도 한국문화관 협회 ‘올해의 최우수 문학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sup>15)</sup>

최명희문학관은 다른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전주시가 직영하지 않고 ‘혼불기념사업회’가 민간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명희문학관은 전주한옥마을 내, 경기전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서 접근성은 좋은 편이지만 주차장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시 공간도 너무 좁아서 많지 않은 소장품조차 순환 전시하고 있다. 공간 확보와 예산 증액, 인력 확충, 유족들이 확보하고 있는 유품의 확대 전시 등은 최명희문학관과 전주시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sup>16)</sup>

전주시 유일의 문학관인 최명희문학관은 전북작가회의를 중심으로 문인들이 수시로 모여 출판기념회와 시민 대상 문학 강연회를 갖고 친교를 나누며 후진을 양성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역의 문인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명한 문인들도 전주를 찾을 경우, 최명희문학관에서 강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에 최기우 학예실장이 집필한 『꽃심 전주』는 이 북(e-book)으로도 제작되어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매년 이 책을 읽은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여 전주정신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5) 최명희문학관 관련 내용은 ‘최명희문학관 홈페이지’와 문학관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제공한 자료를 참조하였다.

16) 도청 소재지도 아닌 보성군 벌교읍에 위치하고 있는 ‘태백산맥문학관’이 979.9㎡ 면적의 전시실에 총 185건 737점의 『태백산맥』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200.8㎡ 면적의 ‘최명희문학관’의 전시실은 매우 협소하다 하겠다. 문학관의 절대 규모를 늘리기 위한 전주시청과 시민사회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학관이 발전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확보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명희문학관이 비교적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유는 비좁은 공간과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기획 능력이 있는 2~3인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3-2. 남원 혼불문학관과 혼불마을의 현황과 개선 방안

1만여 평의 부지에 주변 풍광과 잘 어우러지게 한옥으로 건축된 ‘혼불문학관’은 남원시가 최명희 부친의 고향이자 『혼불』의 배경지인 노봉마을에 조성하였다. 남원시는 작가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주변의 소설 배경이 되는 최씨 종가,<sup>17)</sup> 청호저수지, 달맞이 동산, 새암바위, 노적봉, 서도역 등을 혼불문학관과 연계된 혼불문학마을로 조성하였다.

두 채의 한옥 중 주 건물인 ‘문학관’은 유품 전시실과 집필실인 작가의 방, 주제 전시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유품 전시실에는 작가의 사진과 ‘최명희 혼불’이라 쓴 자필 글씨, 생전에 작가가 사용한 만년필과 잉크병, 꼼꼼하게 정리된 작가의 취재 수첩과 자료집 등이 전시되어 있다. 작품의 주요내용 소개와 작가의 생전 인터뷰 내용을 담은 매직비전, 『혼불』의 배경을 3D 영상으로 재현한 키오스크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작가의 수상 경력과 <동아일보>에 연재되었을 때부터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혼불』창작과 출간의 역사도 문학관 내에 정리되어 있다.

17) 남원 노봉마을에 소재한 최씨 종가는 2007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종부가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남원시가 주축이 되어 종가를 복원하고 복원된 종가에서 『혼불』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시풍속, 관혼상제, 의상, 음식, 예절 등을 시연하고 교육하는 시설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품 전시실 다음에는 일명 ‘성보암’이라고 불리었다는 작가의 집필실을 재현해 놓고 있으며, 소설의 주요 장면을 입체 모형으로 재현한 디오라마(diorama) 10점과 인월댁 베 짜기 시설, 양반가 혼서지 등이 전시되어 있다. 디오라마는 혼례식, 강모와 강실 소꿉놀이, 액막이 연날리기, 효원의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서 그 정기를 빨아들이는 흡월(吸月), 청암부인 장례식, 춘복의 달맞이, 쇠여울네 종가 마루찍기, 청호저수지 고갈 장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꽃심관’에는 ‘사랑실’과 누마루 ‘소살소살’이 있어 문학관을 찾는 이들이 책을 읽거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게 하고 있다

고풍스러운 한옥 형식의 건축물에 너른 정원을 갖춘 문학관 입구에는 물안개를 일으키는 물레방아가 놓여져 있고, 앞마당에는 조형물과 실개천이 흐르고 있다. 문학관 뒤편은 노적봉과 함께 옆으로는 청호저수지와 자그마한 산들이 에워싸고 있으며 휴게시설과 혼불 산책길 등이 조성된 ‘혼불아우름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혼불문학관 인근에는 주 무대인 서도역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천민들이 살았던 거명굴의 흔적도 남아 있다. 문학관이 있는 노봉마을은 소설에 등장하는 매안 이씨 종가가 있는 곳으로 통상 ‘혼불마을’로 불린다 ‘혼불마을’에서는 강모와 효원이 혼례를 치르는 모습 그대로 전통 혼례식을 재현하기도 하고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를 열기도 한다.

혼불문학관은 최명희문학관과 달리 학예실장과 같은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일반 공무원이 문학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해설사들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창의적으로 전시와 행사를 기획하고 특별 프로젝트를 시행할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혼불문학관이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이다.

혼불문학관은 비좁은 최명희문학관과는 달리 넓은 공간과 노적봉에

서 청암호로 이어지는 수려한 경관을 지니고 있고, 무엇보다도 『혼불』의 주 배경지로서의 아우라(aura)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및 문화기획,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해야 할 전문 인력이 없고, 그동안 『혼불』 관련 행사를 주관해 온 ‘(사)혼불정신선양회’의 활동도 최근 들어 미약하다.<sup>18)</sup> ‘혼불문학관’의 주요 체험행사로는 기왓장이나 목판에 『혼불』의 문구를 직접 쓰는 체험 활동이 운영되었으나 이마저도 비치할 공간이 더 이상 없는 바람에 중단된 상태이다.

혼불문학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임실군 오수읍 둔덕리마을은 전주시 다음으로 『혼불』의 ‘꽃심’을 마을의 정신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둔덕리마을은 일단 마을을 ‘꽃심지둔덕기마을’로 브랜드화하고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sup>19)</sup> 장미영은 『혼불』에 묘사되고 있는 다양한 민속행사와 관혼상제 등을 현대에 재현할 것은 제한한 바 있으나, 사실 최명희문학관과 혼불문학관, 혼불마을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속행사는 미흡한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배제된

18) ‘혼불문학관’ 홈페이지도 최근에는 거의 활동이 중단되어 있다. 이는 해마다 ‘혼불문학제’와 ‘혼불문학기행’ 행사들을 개최하고 ‘『혼불』문학총서’를 발간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전주의 ‘혼불기념사업회’의 활동과 대조된다.

19) 둔덕리마을에는 식령 죄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명희의 숙부가 거주하던 집이 남아 있기도 하다. 최명희는 노봉마을 못지 않게 숙부가 살고 있던 둔덕리마을도 자주 방문하였으며, 1552년에 세워진 500년 종가, ‘이웅재고가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많은 영감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둔덕마을은 지금까지 백중행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전국 유일한 교육 동계인 ‘삼계동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삼계동계’는 둔덕리마을 사람들이 모금한 돈으로 훌륭한 교육자를 초빙하거나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동계이다. 이 동계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수없이 양성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독립투사들도 다수 배출하였다. 따라서 ‘혼불마을’을 노봉마을로만 한정하기보다는 ‘둔덕리마을’까지 포괄하고 ‘혼불문학관’의 훌륭한 시설과 넓은 부지를 활용하여 『혼불』에서 제시되고 있는 각종 세시풍속과 음식 조리, 관혼상제문화, 의상 제작 및 입어보기 행사 등을 재현하고 교육하여야 한다고 본다.

상태에서 외래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식의 행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둔덕리마을 행사에는 외래 방문객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마을 주민 대부분이 행사 자체를 즐기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3-3. 서사 음악극, 〈혼불〉과 콘텐츠 개발 현황

최기우가 각색한 서사 음악극 〈혼불〉은 바로 소설 『혼불』이 갖는 의미를 음악적으로 되살려 내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sup>20)</sup> 2002년 전주 월드컵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전주시립국악단이 기획·제작한 이 작품은 2002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초연되었으며 이후 서울 공연장에 초청되어 연주하였다. 또, 2003년 전주세계소리축제에 공식 작품으로 초청되는 등 초연에 그치지 않고 해마다 연주되고 있다. 서사 음악극 〈혼불〉에서는 소설 『혼불』의 내용을 대서사시로 편작하여 각각의 장면을 칸타타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작품의 구성은 서곡에 이어 ‘초혼가’가 연주되며 뒤이어 총 5막 18장의 서사극이 전개된다.

음악적으로는 국악관현악과 판소리 합창, 일반합창 그리고 풍물이 중심이 되도록 작곡하였으며, 소설의 중요한 부분은 판소리의 독창을 가미하여 합창과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각 장(5부작)의 내용에 따라 영상과 춤 그리고 풍물, 연극적 요소 등을 가미한 종합 무대예술로 만들어 우리 민족

20) 여기서 『혼불』이 갖는 의미란 “봉건적 질서가 해체되어 가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 과정을 매안 이씨 종가와 주변 마을 사람들을 통해 그린 것”을 말한다. 작가 최명희는 청암부인을 통해서 반상의 질서가 이미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사회적 약자까지 넉넉하게 포용하는 리더십을 통해 권위를 유지하는 모습을 그리고는 한편, 낮은 질서에 여전히 의지하고 집착함으로써 무너져 가는 양반들과 그들에 도전하는 천민들의 모습을 동시에 그리고 있다.

문화와 정신을 예술적 혼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원작소설 『혼불』은 사건의 흐름을 따라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때그때 인물과 배경, 상황을 계기로 방사형으로 퍼져 전개된다. 하지만 공연을 위해 마련된 대본은 시간적 배열에 따른 사건에 집중했다. 작품 자체가 미완이고 군데군데 9권 첫머리부터 약 2백여 쪽에 걸쳐 펼쳐지는 불사(佛事) 이야기나 6권(진맥) 중 비장의 의학적 설명, 한민족의 시조 설화 등 기록과 자료의 내용이나 공간적 배경이 만주인 내용 등은 음악극에는 담겨 있지 않다.

2017년 7월,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는 ‘꽃심, 나르샤’라는 드론 기반 융합 미디어 아트쇼가 공연되었다. 풍류, 창신, 올곧음, 대동 등 4막으로 구성된 이 공연은 홀로그램 인터렉션 퍼포먼스와 드론을 활용한 패션모델의 런웨이, 드론 자율주행을 활용한 캘리그래피 퍼포먼스와 스트리트 댄스, 판소리, 한국무용, 서예퍼포먼스, 동춘서커스, DJ음악공연 등 현대적 감각의 다양한 예술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현재로서는 서사 음악극 〈혼불〉과 융합 미디어 아트쇼 ‘꽃심, 나르샤’가 『혼불』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전부라 할 수 있다. 박경리의 『토지』가 청소년 『토지』, 만화 『토지』, 영화 『토지』, 3번이나 제작된 드라마 『토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토지』가 다양하게 재창조될 수 있었던 것은 원작의 우수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족들의 협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원주, 하동, 통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주와 하동에 각각 위치한 토지문화관에는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토지』를 비롯한 박경리 작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토지학회’가 구성되어 1년에 두 차례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연길, 하얼빈, 장춘, 지리산 등과 같은 국내외



소설 배경지 탐방 행사도 개최한 바 있다.

『혼불』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미영이 제안 바와 같이 『혼불』의 내용을 문화 유형별로 나누어 ‘시놉시스’로 제작하고, 인물별, 배경별, 시점별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작업 등이 먼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sup>21)</sup>

#### 4. 결론

지역 문화유산은 그동안 각 지역 문학관을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다. 문학관은 작가 초청 행사, 문예공모전, 학술대회, 상설 및 특별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 정신을 정립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명희의 『혼불』은 전북지역 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소비되고 있는 작품이다. 전주와 남원에 각각 최명희문학관과 혼불문학관이 건립되어 있고, 서사 음악극 〈혼불〉이 2002년부터 공연되고 있으며, ‘혼불문학상’, ‘혼불학술상’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과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시 및 체험 공간의 협소, 예산의 부족, 전문 인력을 비롯한 인적 자원의 부족, 『혼불』전문 연구학회의 부재, 『혼불』 관련 모든 시설과 행사를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지역 문화유산으로서의 『혼불』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21) 장미영, 『소설의 문화원형 콘텐츠화 방안-최명희 〈혼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4집, 2004, 453쪽.

실정이다. 최근에 전주와 임실군 오수읍 둔덕리마을에서 ‘꽃심’을 지역의 대표 정신으로 설정하여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 최명희문학관은 민간 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남원 혼불문학관은 시청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 군데 모두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명희문학관의 경우에는 ‘전북작가회의’ 소속 인력들이 문학관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일정하게 전문성을 획득하고 있다. 남원 혼불문학관은 (사)혼불문학기념사업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던 시기에는 『혼불』 전문 연구가들의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졌었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시청에서 일반 공무원을 관장으로 파견하여 운영할 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전시 및 행사 기획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재원은 “문학관은 기억, 지역이 만나면서 때로는 상충하면서 새롭게 의미화 되는 장소이다. 문학관은 지역의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오래된 미래다.”라고 하였다.<sup>22)</sup> 문학관이 ‘오래된 미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문학관이 단순히 작가의 유품을 전시하고 작품의 일부를 재현하는 공간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작가의 문학정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문학관은 작품에 담긴 정신을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를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 연구자들의 확보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혼불학회’를 창설하여 『혼불』에 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축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혼불』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학자와 전문 인력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학 분야 외에도 철학, 역사

22) 문재원, 『문학관에서 지역을 읽다』, 『로컬리티의 인문학』 3집, 2008, 2쪽.

학, 민속학, 음악학, 미술학, 종교학 분야의 학자와 음식, 의상, 의례 진행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회의 구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크고 작은 문학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전라북도 내에도 채만식문학관(군산), 가람문학관(익산), 신석정문학관(부안), 김환태문학관(무주) 등이 개관하였다. 문학관 자체의 예산으로는 전시비와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원금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늘 문광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학관의 예산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또한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문학관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작성하고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전주는 '전주정신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적은 보수 때문에 대부분의 강사가 겸직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 또한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학관은 이제 역동적, 개방적,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문학관 내의 인력과 문학관 외부의 전문학자, 관객,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주가 『혼불』에서 '꽃섬'의 정신을 찾아내어 지역의 정신으로 정립하였듯이,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와 시인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정신을 추출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최명희, 『혼불』, 한길사, 1996.

### 2. 논문과 단행본

강은혜, 「한국 민속의 전통과 현대소설－최명희의 『혼불』을 주목하여」, 『한국학논집』 18집, 1991, 213-246쪽.

고은미, 「지역사의 관점에서 본 『혼불』」, 『온·다라인문학 인문강좌 자료』, 2014.10.

김경원, 「근원에 대한 그리움으로 타는 작업, 최명희 『혼불』」, 『실천문학』, 1997.5, 410-419쪽.

김병용, 『최명희 소설의 근원과 유역－『혼불』의 서사의식』, 태학사, 2009.

김수영, 「『혼불』의 서사 공간 해체 구조」, 『어문논총』 27, 2015, 3-31쪽.

김용재, 「전통적 이야기 서술방식의 현대적 변용 양상연구, 혼불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56, 2014, 157-176쪽.

김희진, 「최명희 『혼불』에 나타난 생태적 상상력」, 『문학과 환경』 12집, 2013, 47-65쪽.

박대복·이영월, 「〈혼불〉에 나타난 풍수신앙 연구」, 『우리문학연구』 34집, 2011, 69-97쪽.

\_\_\_\_\_, 「〈혼불〉에 나타난 해원과 결월의 이원적 서사구조」, 『우리문학연구』 31집, 2010, 145-176쪽.

박현선, 「〈혼불〉의 인물유형의 갈등 구조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5집, 2004, 482-505쪽.

백지연, 「『핏줄』의 서사－혼 찾기의 지난함, 『혼불』론」, 『창작과 비평』 25(2), 1997, 174-193쪽.

유영대, 「판소리 전통과 최명희의 『혼불』」, 『판소리연구』 29집, 2010, 169-195쪽.

윤영옥, 「『혼불』에 나타난 여성하위주체의 재현방식」, 『현대소설연구』 56집, 2014, 341-371쪽.

이동재, 「〈혼불〉에 나타난 역사와 역사의식론」, 『한국근대문학연구』 3집, 2002, 301-321쪽.

이동희 외, 『한국의 꽃심, 전주』, 전주정신다올마당, 2018.

장미영, 「소설의 문화원형 콘텐츠화 방안－최명희 〈혼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4집, 2004, 435-453쪽.

장일구, 「서사 은유의 문화적 인지 공정－『혼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

- 평』 19(3), 2015, 117-157쪽.
- 장일구, 『혼불읽기 문화읽기』, 한길사, 1999.
- 장일구 외, 『혼불, 그 천의 얼굴 1』, 태학사, 2011.
- 전라문화연구소,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 전주시청, 『꽃심 전주』, 전주시청 홈페이지, 2016.
- 정도미, 「〈혼불〉 속 매안마을의 다층적 공간 표상」, 『어문논총』 27집, 2015, 33-62쪽.
- 정호웅, 「박물관의 형식-최명희 대하소설 『혼불』론」, 『황해문화』, 1997, 373-380쪽.
- 최윤경, 「최명희의 『혼불』 연구」, 『어문논총』 23집, 2012, 171-199쪽.
- 홍성암, 「〈혼불〉의 서사구조 연구」, 『현대소설연구』 23집, 2004, 113-116쪽.

## Abstract

### The Application of Local Inheritance in Jeonbuk Literature – Focused on Choe Myeng Hye’s *Hon Bul*

Kim Seung-Jong(Jeonju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new assignment for application of local inheritance in Choe Myeng Hye’s *Hon Bul*.

Choe Myeng Hye’s *Hon Bul* is a novel which contains a history of Lee’s Family and Korean ethnography, especially Jeonbuk’s ethnography. History, culture, folklore, and the customs of Jeonbuk interrupts the main story of this work. Two literary houses are located in Jeonju and Namwon and the memorial park of Choe Myeng Hye is located in Jeonju. A lot of events are held annually such as the ‘literary festival of Hon Bul’, ‘scholarship award of Hon Bul’, and a ‘literary tour of Hon Bul’. The musical drama ‘Hon Bul’ has also been performing in Jeonju since 2002. However, the family of the deceased did not aid in the application of local inheritance in Choe Myeng Hye’s *Hon Bul*. The budget for the application of local inheritance in Choe Myeng Hye’s *Hon Bul* is lacking.

Two literary houses should dispose of the specialists who plan and manage the literary events of Choe Myeng Hye’s *Hon Bul*. The academic society for studying Choe Myeng Hye’s *Hon Bul* should be created. The academic society for the study of Choe Myeng Hye’s *Hon Bul* can control all events and exhibitions. The theme of Choe Myeng Hye’s *Hon Bul* is ‘the power of flowers’. ‘The power of flower’, ‘Kot Sim’ in Korean, became ‘the spirit of Jeonju’ in 2016 in recognition of its forming of citizenship and the identity of the city.

This paper proposes new directions of assignment for the application of local inheritance in Choe Myeng Hye’s *Hon Bul* both in hardware and software. We expect the application of local inheritance in Choe Myeng Hye’s *Hon Bul* will enhance the pride of the community.

(Keywords: application of local inheritance, Choe Myeng Hye, *Hon Bul*, ‘The power of flowers’, spirit of Jeonju, Jeonju, Namwon, literary house)

논문투고일 : 2018년 10월 11일

논문심사일 : 2018년 11월 5일

수정완료일 : 2018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3일